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1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2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3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 내 지은 죄 주홍 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4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후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도 담당

11/17(화)	11/18(수)	11/19(목)	11/20(금)	11/21(토)	11/23(월)
전병천 안수집사	안상은 안수집사	김성우 안수집사	이양종 안수집사	고광수 안수집사	박우현1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롬12:11)

2026년 11월 17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22장	다 같 이
기 도		전병천안수집사
성경봉독	열왕기하 22장 8~11절	인 도 자
찬 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벽찬양대
설 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장지훈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1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2:8~11>

8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10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11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11월 17일(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아버지의 품 안에 평안히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우리를 다시 깨워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보이지 않는 시간과 자리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언제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 새문안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역사를, 더 빛나고 아름답게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교회창립 140주년과 헌당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당회와 제직, 새문안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놀랍도록 기대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든 자녀와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갈등과 분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있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겸손과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폐허가 된 땅과 영혼들마다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